집안에 부처님 모셔도 "괜찮을까"

재가불자 불단 설치 놓고 이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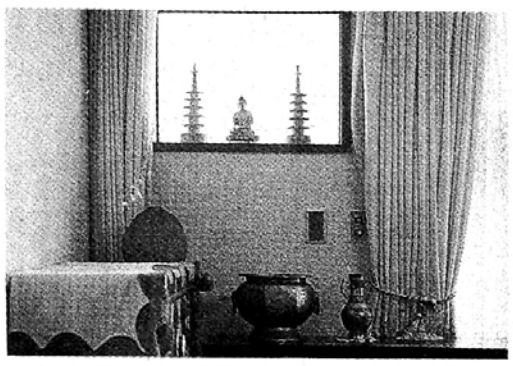
가정에 불단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집안에 불상을 모시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재가불자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은 최근들어 불교가 생활 속에 용해되면서 제기 되었다. 그 동안 민가에 전래된 불교는 집안에 불상을 모셔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강했다. 따라서 불자들은 부처님께 예경을 하기 위해 산속의 사찰을 찾아야만 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매일 사찰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정불단의 찬반 논란은 여기에서 표면화 되었던 것이다.

집안에 불단을 마련하고 매일 예배를 갖는 방송작가 윤청광씨는 "신라시대 집집마다 불단을 차려놓고 집안에서 예불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며 "집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가족 모두가 하루하루 무사히 본분을 다한 데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본을 비롯 태국·버마·스리랑카 등의 불교국가들은 집을 지을 때부터 불단을 마련하고 매일 예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정불단 만들기는 대중불교운동을 펼치는 한국불교대원회(이사장 박윤흔)를 주축으로 10여년전부터 꾸준히 펼쳐지고 있다. 대원회는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자'는 캠페인을 내걸고 가정불단 마련하는 방법, 가정에서의 예불, 서돈각박사등 불교계 원로들의 가정불단 소개 등을 통해 가정불단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하고 있다.



◇ 한 불자가정이 응접실 창가 유리문 상단을 비워서 마련한 불단. 불자들은 가정불단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직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집안에 불상모시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한 생활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 부처님을 모셔 도리어 화를 부르지 않을까를 염려해 가정불단이 터부시 되어 오고 있다. 또한 자칫하면 불상을 집에 모셨을 때 기복·타력신앙으로 흐를 염려가 있고 일상을 구속하는 또 하나의 집착을 낳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능인선원 15기 회장 구필회씨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복·건강·합격·승진 등을 비는 경향이 있고, 이것도 모자라 부적을 몸에 지니기까지 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항시 팔정도를 신행의 지표로 삼는 경우라면 마음속에 불상을 모시고 있으니 구태여 따로 모실 까닭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기복에 흐르기 십상이니 가정에 불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 부근 불구상가에는 한달에 1~2명의 재가불자가 가정불단을 차리기 위해 불상을 찾고 있다. 가정불단은 불상, 불감을 비롯 관음보살도 등의 불화, 반야심경등의 경전 등이 이용되고있다.

〈엽〉

독자토론

가정 불단

찬성



윤선덕화

부처님과 늘 함께 …가르침 생활화

각 가정에 불상을 모시는 일은 내 마음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만큼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현재 불자들의 가정에 보면 불상은 아니더라도 부처님 사진이나 「불」자 표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자칫하면 벽면을 장식하는 장식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소승 불교권인 나라에 보면 각 가정에 불단이 마련되어 있어서 특별히 공양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음식이나 예쁜 꽃을 올려 예불 드리고 있다.

이것은 꼭 부처님에게 한다는 생각보다 내 마음의 어른이시고 내 가정의 어른에게 인사 드린다는 의미가 더 깊다.

점차 핵가족화되어가는 우리의 가정에는 참어른이 없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어 아이들의 웃사람 노릇을 하는 현실에서 반드시 집안에 불단이 있고 부처님이 모셔져야 한다.

아침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전 불단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가는 광경은 몹시 흐뭇하다.

"부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험 입니다. 제가 아는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 다녀 오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하는 하루 인사는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거나 교만하여 다른이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언어는 마음의 때를 벗게 한다.

이런일들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단이 필요하다. 불상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을 모셨을 때와 안 모셨을 때 마음의 차이인 것이다. 요즈음은 모두가 바쁘다고 하다. 너무 바빠서 법회에 나갈 시간도 없다고 한탄 한다.

부처님은 꼭 법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내 집에 모셔 놓으면 내 집이 법당이 된다. 내마음에 모시면 내가 곧 법당이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한분씩 부처님을 모시면 온 세계가 자비로 가득한 법당이 될 것이다.

〈주부·서울 노원구〉

다음 독자토론 주제는 「부적」 입니다. 12월 3일까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동현

자성불 외면한 타력신앙 우려

불교신도의 수가 증가하면서 여러 신자들의 종교생활 모습도 다양해진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그 중 개인의 집에 불상을 모셔놓은 불도들이 있어 불교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재가불단은 그 신심의 진실됨 여부에 관계 없이 불교의 본질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첫째, 개인의 집에 부처님을 모셔놓음으로써 부처님을 섬기는 듯한 왜곡된 종교생활을 초래할 수 있다. 불상이 본래 부처님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불상은 다만 의심 많고 마음 약한 인간에게 신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재가불단은 자칫 부처님을 우상화하게 되고 결국 자기 안의 부처를 찾아 깨달음을 얻는 그 본질로부터 벗어난 종교생활로 흐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셔놓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집에다 불상을 모셔놓은 그 자체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TV, 오디오, 비디오, 쇼파, 가구 등 집기가 많은 현대 우리의 집안 어디에 불상을 놓는단 말인가? 가정 집기들 사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불상은 아무래도 그 경건함을 갖기가 어렵다.

하나의 방에 따로이 불단을 마련한다해도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신당이나 굿당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당이나 굿당의 이미지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종교생활과 연결될 수 없다. 결국 재가불단은 그 경건함이나 본질 면에서 왜곡을 드러내게 된다. 현대는 조선시대처럼 몰래 혼자서만 부처님께 절하는 시대가 아니다. 자유로이 절에 가서 마음이 같은 여러 신도들과 함께 찬불가도 부르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며 즐겁고 활발하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훌륭하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의 때를 닦아낼 수도 있다.

요즘은 현대인의 생활리듬에 맞춰 주말법회를 여는 절도 늘고 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흐려질 때 절에 찾아가 예불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청정함을 재가불단에서 만분의 일이라도 맛볼 수 있을까?

참된 의미의 생활불교는 불·법·승 삼보와의 조화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심과 신행의 조화 속에서 종교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회사원·천안〉

만 화

法句經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수양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이 향 원



한장의 佛字가 가정과 불교를 일으켜 세웁니다.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을 위한 2천만 佛字 보급

"불자님의 정성어린 동참이 한국불교의 숙원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
본 佛事는 교육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애타게 염원하는
스님의 뜨거운 구도의 열이
빚어낸 역사입니다.

2천만장의 장대한 서원
오직 佛字만을 화두로 잡은 용맹정진
오늘도 그의 붓끝에는
새벽 안개처럼 밝은 향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 작품 : 無佛스님(무량사 주지)
"



교계유일의 예술대학

본 대학은 88년 개교이래 불교교육 연구와 인재양성, 부속연구기관설립 등 대학으로서의 내실을 다져온 교계 유일의 종합예술 대학입니다.
앞선 교육이념, 철저한 교육관리와 뛰어난 교수방법으로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을 양성하는 저희 대학의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넓은 세계로 웅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불사에 동참하시게 되면

▶ 동참자의 모든 작품에는 『대동불교예술대학 학사건립 동참기념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작품의 희소가치를 입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 회망시에 동참자의 이름도 작품에 넣어 드립니다.
▶ 일련번호 따라 동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학 본관 주춧돌에 새겨서 그 뜻을 길이 남기게 됩니다.

문의: ☎ 725-7527

주부를 위한 『가야금·판소리』강좌

주부들의 음악적인 정서함양과 예술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초보자 및 중견 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실기지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개강: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4시(수시접수)
▶ 장소: 본원 가야금 연습실
▶ 회비: 월 8만원
▶ 특전: 개인의 희망에 따라 별도의 연습시간을 협의, 보충지도 가능

대동불교예술대학

국악과 / 가야금합주단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 **예술대학**: 불교학과/유초등교육학과/음악과(작곡·피아노·성악)/국악과(기악·타악·성악) (02)725-7527 ■ **교육연구소**: 법회교육연구부/시청각교육연구부/불교음악연구부/법회조직연구부/교육행정연구부 (02)725-7529 ■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자격-국교3, 중2학년/특정-음악전공자 개인별지도/대주토·일/수시등록가 (02)723-1525 ■ **청소년가야금합주단**: 자격-고등학교 1학년, 2학년/특정-예대진학지도중심/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 (02)723-1528 ■ **주부가야금반**: 자격-초급, 중급, 고급의 일반주부/특정-개인지도 실시/매주 화·목/수시등록가능(02)723-7528